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147-155,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147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곽혜원[1], 이지은[2*]
[1]계명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대경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Hye-Weon Kwak[1], Ji-Eun Yi[2*]
[1]**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eimyung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Daekye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 3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생 261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7일~18까지 설문조사하였고,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대인관계는 평균 3.74±0.39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21±0.54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3.44±0.45점이었다. 대인관계는 연령(F=3.12, p=.046), 간호학 전공만족도(F=15.84, p<.001), 대인관계 중요성(F=4.76, p=.001), 학업성적(F=3.80, p=.01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연령(F=8.05, p<.001), 간호학 지원동기(F=4.55, p=.001), 간호학 전공만족도(F=2.69, p=.04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학 전공만족도(F=3.24, p=.022), 대인관계 중요성(F=3.01, p=.019), 학업성적(F=5.24,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만족도(r=.24, p<.001)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인관계(β=.21, p<.001), 학업성적(β=.12, p=.045)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was examined.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261. Data collected from 7 September to 18 September 2015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mean scores fo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3.74±0.39), stress (3.21±0.54), and satisfaction (3.44±0.45) in clinical practice were above averag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year (F=3.12, p=.046),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F=15.84, p<.001), importa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4.76, p=.001), and academic achievement (F=3.80, p=.011).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year (F=8.05, p<.001), application motivation (F=4.55, p=.001)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F=2.69, p=.046).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F=3.24, p=.022), importa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3.01, p=.019), and academic achievements (F=5.24, p=.002).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r=.24,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β=.21, p<.001), academic achievements (β=.12, p=.045) wer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ed to be improved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Keywords : Clinical practice, Interpersonal relations,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Ji-Eun Yi(Daekyeung Univ.)
Tel: +82-53-850-1432 email: hellost@hanmail.net
Received November 30, 2015 Revised (1st December 21, 2015, 2nd January 11, 2016)
Accepted February 4,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간호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간호교육의 핵심목표는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의 통합교육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질적인 간호제공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1].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임상실습이며[2]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하고,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3,4].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환자, 의료진, 보호자와 갈등 없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임상실습 수행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간호실무능력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신규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으로 이어지고[5], 향후 간호대학생이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핵심요소로 작용하므로[6], 간호대학생 때 대인관계능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관련 선행연구에서 측정변수와 관련하여, 일반적 특성에 포함된 대인관계능력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7,8]는 있었으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임상실습과 관련지어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론적인 지식의 현장실습 적용의 어려움, 의료진 및 대상자와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역할수행의 모호함, 간호기술 및 수행능력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무력감으로 인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9,10].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이어져 학습에 대한 불안정과 집중력 감소를 가져와[11] 학업성취도를 감소시키며, 임상실습과 간호에 대한 흥미와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어 임상실습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12]. 임상실습 만족도의 저하는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6]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까지 연구를 볼 때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였으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변수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 관련성을 규명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추후 이를 근거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궁극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진시키게 되어 간호학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1학기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

여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261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과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 표본 크기 산출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α-.05, 효과크기(effect size)는 회귀분석의 중간 크기로 .15, 검정력(power)는 95%, 예측변수를 2개 정도로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수 107명이 필요하나 중도탈락의 우려를 고려하여 270명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인관계

본 연구에서는 Schlein, Guerney와 Stover[13]의 대인관계변화 척도를 Moon[14]이 번안한 대인관계변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건강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α는 도구 개발당시 .86이었으며, 번안된 척도의 Cronbach's α는 .7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4이었다.

2.3.2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과 Srivastava[15]가 개발하고, Kim과 Lee[9]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업무 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2.3.3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는 Cho와 Kang[16]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Lee[17]가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Kim과 Kim[18]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실습교과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Kim과 Kim[1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12일간 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의 간호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작성토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270부였으며 이중 불완전 응답을 제외한 261부를 자료 분석 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으로 분석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정도를 규명하기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25세가 225명(86.2%), 26~30세가 18명(6.9%), 31세 이상이 18명(6.9%)이었다. 성별은 남자 21명(8%), 여자 240명(92%)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이 168명(64.4%), 3학년이 93명(35.6%)이었다.

간호학 지원 동기는 '내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135명(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의 권유' 69명(26.4%), '취업률이 높아서' 39명(14.9%) 순이었다.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23명(47.1%), '보통'은 99

명(37.9%), ‘매우 만족’은 36명(13.8%)이었다. 대인관계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141명(54%)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 성적은 3.0～3.4가 141명(5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N=261)

Characteristic	Categories	n(%)
Year	20～25	225(86.2)
	26～30	18(6.9)
	≧31	18(6.9)
Gender	Female	240(92.0)
	Male	21(8.0)
Grade	3	93(35.6)
	4	168(64.4)
Application motivation	Interest	135(51.7)
	Recommendation	69(26.4)
	Employment rate	39(14.9)
	Professions	15(5.7)
	etc	3 (1.1)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satisfied	36(13.8)
	Satisfied	123(47.1)
	Moderate	99(37.9)
	Dissatisfied	3 (1.1)
Importa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t very important	21(8.0)
	Not important	6(2.3)
	Moderate	6(2.3)
	Important	87(33.3)
	Very important	141(54.0)
Academic achievement(grade)	<3.0	72(27.6)
	3.0～3.4	141(54.0)
	3.5～4.0	45(17.2)
	4.1～4.5	3(1.1)

3.2 대상자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대인관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4±0.39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21±0.54점이었으며, 하부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실습교육환경 3.20±0.59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3.23±0.65점, 실습업무 부담 3.64±0.65점, 대인관계 갈등 3.06±0.92점, 환자와의 갈등 2.98±0.78점이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4±0.4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실습교과 3.84±0.65점, 실습내용 3.08±0.59점, 실습지도 3.42±0.59점, 실습환경 3.45±0.58점, 실습시간 3.51±0.69점, 실습평가 3.74±0.73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261)

Variable	Mean±SD	Range
Interpersonal relationship	3.74±0.39	1～5
Stress in clinical practice	3.21±0.54	1～5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20±0.59	1～5
Undesirable role models	3.23±0.65	1～5
Practice burden	3.64±0.65	1～5
Interpersonal conflict	3.06±0.92	1～5
Conflicts with the patients	2.98±0.78	1～5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3.44±0.45	1～5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3.84±0.65	1～5
Clinical practice content	3.08±0.59	1～5
Clinical practice instruction	3.42±0.59	1～5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45±0.58	1～5
Clinical practice time	3.51±0.69	1～5
Clinical practice evaluation	3.74±0.73	1～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연령(F=3.12, p=.046), 간호학 전공만족도(F=15.84, p<.001), 대인관계 중요성(F=4.76, p=.001), 학업성적(F=3.80, p=.011)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학년, 간호학 지원동기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대인관계는 간호학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 ‘보통’, ‘불만족’ 보다 높았으며, 대인관계 중요성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중요하다’ 보다 높았다. 학업성적은 3.5～4.0이 3.0 미만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연령(F=8.05, p<.001), 간호학 지원동기(F=4.55, p=.001), 간호학 전공만족도(F=2.69, p=.04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학년, 대인관계 중요성, 학업성적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6～30세가 20～25세, 31세 이상보다 높았으며, 간호학 지원동기에서 ‘주위의 권유’로 지원한 경우가 ‘취업률이 높아서’ 지원한 경우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학 전공만족도(F=3.24, p=.022), 대인관계 중요성(F=3.01, p=.019), 학업성적(F=5.24,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성별, 학년, 간

Table 3.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1)

Characteristic	Categor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ICP*		Satisfaction ICP*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Year	20-25[a]	3.73±0.40	3.12(.046)	3.21±0.54	8.05(<.001)	3.43±0.45	0.56(.568)
	26~30[b]	3.87±0.39		3.58±0.22	a,c<b	3.53±0.43	
	≧31[c]	3.92±0.24		2.87±0.53		3.50±0.43	
Gender	Female	3.74±0.38	0.07(.785)	3.22±0.52	0.73(.391)	3.42±0.43	3.53(.061)
	Male	3.77±0.59		3.11±0.69		3.62±0.61	
Grade	3	3.67±0.43	-2.47(.014)	3.31±0.44	0.53(.595)	3.46±0.40	-1.87(.063)
	4	3.79±0.38		3.28±0.42		3.56±0.43	
Application motivation	Wanted[a]	3.74±0.40	0.50(.729)	3.20±0.52	4.55(.001)	3.41±0.45	1.43(.222)
	Recommendation[b]	3.75±0.39		3.38±0.50	b>c	3.51±0.51	
	Employment rate [c]	3.74±0.43		2.99±0.58		3.50±0.34	
	Professions[d]	3.83±0.29		3.24±0.59		3.36±0.40	
	etc[e]	3.48±0.00		2.588±0.00		3.06±0.00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satisfied[a]	4.02±0.36	15.84(<.001)	3.01±0.55	2.69(.046)	3.64±0.52	3.24(.022)
	Satisfied[b]	3.75±0.37	a>b,c>d	3.29±0.58		3.43±0.45	a>c
	Moderate[c]	3.67±0.36		3.19±0.47		3.39±0.41	
	Dissatisfied[d]	2.72±0.00		3.37±0.00		3.16±0.00	
Importa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t very important[a]	3.81±0.56	4.76(.001)	3.23±0.63	0.77(.545)	3.61±0.31	3.01(.019)
	Not important [b]	4.02±0.10	d<e	3.06±0.47		3.12±0.31	
	Moderate[c]	3.40±0.08		3.18±0.70		3.51±0.56	
	Important [d]	3.63±0.39		3.14±0.47		3.34±0.49	
	Very important[e]	3.81±0.37		3.26±0.56		3.49±0.42	
Academic achievement (grade)	<3.0[a]	3.64±0.40	3.80(.011)	3.22±0.64	1.31(.272)	3.39±0.39	5.24(.002)
	3.0~3.4[b]	3.75±0.34	a<c	3.25±0.48		3.40±0.45	a,b<c
	3.5~4.0[c]	3.86±0.51		3.08±0.56		3.68±0.47	
	4.1~4.5[d]	4.08±0.00		3.45±0.00		3.32±0.00	

* in clinical practice

호학 지원동기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 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3.5~4.0인 경우가 3.0 미만, 3.0~3.4 보다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성은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만족도(r=.2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r=-.06, p=.296)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4).

3.5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더 강력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학년, 간호학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중요성, 학업성적을 포함시켰다. 산출된 임상실습 만족도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0.20, p<.001),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β=.21, p<.001), 학업성적(β=.12, p=.045)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261)

Vari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in clinical practice
	r(p)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24(.<001)	-.06(.296)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261)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374	.256		9.26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245	.069	.217	3.54	<.001
Academic achievement	.080	.040	.124	2.01	.045
R^2=.07 Adjustive R^2=.06 F=10.20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점수는 5점 척도에서 3.74점이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7]에서 대인관계 점수가 3.68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타과 학생의 3.23점 수준보다는 높았는데[19],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다양한 임상실습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대상자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도록 요구받고 있으므로 스스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 전공만족도, 학업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공만족도, 수간호사와의 관계, 평간호사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Kim, Jang, Lee와 Jang[2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와[20] 유사한 것이다.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학업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1], 이처럼 대인관계와 전공 만족도, 학업성적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공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된다면, 전공학문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되어 학업성적이 향상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이 대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3.2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한 Hwang[22]의 3.61점보다 낮았고, Yang과 Moon[23]의 3.45점과 유사하여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하부영역별 분석에서 실습업무 부담감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한 Kim과 Lee[9]의 연구에서, 실습업무 부담 중 실습 과제물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므로 임상실습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시행 전 간호에 대한 충분한 이론 및 술기에 대한 습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제물에 대한 태도 및 요구도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과제물이 스트레스 요인이 아닌 효율적인 학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간호학 관련 만족감,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4]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였으나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8,23]과는 다른 결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한 Kim과 Lee[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25]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에 불만족하는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임상실습 자체를 스트레스로 여기게 되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속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면 실습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12] 실습 기간 중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

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4학년과 3학년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4학년이 3학년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2,23]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4학년과 3학년의 대상자 수 차이가 커 비교가 정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최대 평점 5점에 대해 3.4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한 Kim[8]의 3.06점, Kim과 Kim[26]의 3.10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연구자마다 대상자 수가 다르고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가 달라 점수만으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부영역별 분석에서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Kim과 Kim[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중요성, 학업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공 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Park[27]의 연구와 학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Yang과 Moon[2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21],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므로[8], 결과적으로 학업성적 우수자,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적, 임상실습 만족도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실습 전 이론 교육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자부심 및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의에 의한 전공 선택인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므로[28], 입학 시 학생의 간호학과 지원동기와 전공에 대한 흥미 정도를 학과차원에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 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결과,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가족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가 높고[29],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높았던 선행연구[30]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임상실습은 대부분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이 실습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업무는 간호대상자, 보호자 및 의료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갈등 없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우므로 임상실습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임상실습을 위한 외적인 환경과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강화한다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좀 더 긍정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대인관계, 학업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대인관계를 제시한 선행연구[7]와 일치한 결과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시켜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대인관계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효과적인 임상실습 수행에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향후 연구의 표집단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회귀모형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6%로 나타나, 후속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추가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의 정도를 조사하고,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인관계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향후 간호사로의 간호실무 능력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

[1] Waldner, M., Olson, J.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14(1):p1-14. 2007.
DOI: http://dx.doi.org/10.2202/1548-923x.1317

[2] H. O, Kang.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0.

[3] J. A, 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3): p325-334. 2004.

[4] S. 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p.132-146. 2000.

[5] H. W, Kwak, N. H, Kim. Effects of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p330-339.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330

[6] W. S, Lee, J. Y, Uhm, T. H, Lee. Role transition of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Analysis of predictors for role transition.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2): p187-194. 2005.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2.187

[7] H. Y, Koo, H. 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 p311-321.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1.311

[8] E.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fatigu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0(1): p24-36, 2015.

[9]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p98-106. 2005.

[10] Xabier, Z .G., Xabier, H. E., Mari, J. A. E, Inma, E. G., Maite, B. L., Xabier, S. C. Stress sources in nursing practice, evolution during nursing training, Nurse education today, 27(7): p777-787. 2007.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6.10.017

[11] J. I, Kim, J. S, Kim. Effects of clinical training on stress, anxiety and changes in autonomic Nervous Syst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3(2): p102-108. 2011.

[12] S. Y, Jung, C. H, Hwang, J. Y, Go, B. K, Cho, H. L, Lee. Effect of stress level on academic achievement assessment among nursing students. Collection of dissertation of Dongyang University, 4(1): p177-196, 2010.

[13] Schlein, S., Guerney, B., Stover, L.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Pennsylvania University: Pennsylvania. 1971.

[14] S. M, Moon. A study on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aining group counseling. The Journal of Gyengsang University, 19(1): p195-204. 1980.

[15] Beck, D. 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p127-133. 1991.

[16] K. J, Cho, H. 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p63-74. 1984.

[17] S. E, Le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p333-348. 2001.

[18]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2): p219-231. 2004.

[19] S. J, Kim, H. H, Kim.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3(3): p304-313. 2013.

[20] H. J, Kim, E. H, Jang, I. H, Lee, H. J, Jang. A Study on Self esteem interpersonal ability,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Yeungnam University College, 38(1): p155-168. 2009.

[21] W. K, Cho. Relationship among College Admission System, College Students' College Life and Satisfaction on College Major,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2015.

[22] S. J,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p205-213. 2006.

[23]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p216-225.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2.216

[24] M. S, Lee, K. S, Kim, M. K, Cho, J. W, Ahn, S. N, Kim. Study of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1(2): p125-134. 2014.
DOI: http://dx.doi.org/10.5953/jmjh.2014.21.2.125

[25] J. J, Yang. A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assertiveness, clinical stress and nursing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wangju Health College, 25(1): p393-417. 2000.

[26] N. H, Kim, K. Y, Kim.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Management, 5(4): p41-51. 2011.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1.5.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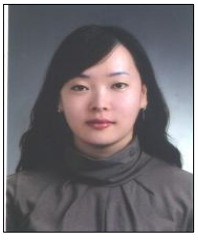
[27] B. S, Park.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by sex role identity among students. Kwandong University, Kangwon. 2009.

[28] S. J, Lee. Level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0(2): p41-52. 1980.

[29] H. J, Gu.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p.205-214. 200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2.205

[30] E. J, Shin.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3): p380-386, 2008.

곽 혜 원(Hye-Weon Kwak) **[정회원]**



- 2003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8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2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대인관계, 성인간호, 재활

이 지 은(Ji-Eun Yi) **[정회원]**

- 2007년 6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6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 2014년 4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대인관계, 건강증진, 지역사회간호